



끊임없이 움직이는 별: 제니스, 고진동 투르비옹이 장착된 DEFY SKYLINE 을 선보이다

DEFY Skyline 의 반짝이는 별 무리에 새로운 별이 태어났습니다. 제니스 매뉴팩처가 새로운 오토매틱 고진동 투르비옹 칼리버가 장착된 **DEFY Skyline Tourbillon** 을 스틸과 블랙 세라믹 소재의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오랜 시간 수준 높은 파인 위치메이킹 기술로 여겨져 온 경이로운 투르비옹 메커니즘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뉴팩처의 노하우와 숙련된 위치메이커의 탁월한 기술력을 증명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18 세기 말 중력이 시계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자 최초로 고안된 투르비옹이 이제 제니스의 모던한 재해석을 거쳐 새롭게 태어납니다. 일상 속 어떤 상황에서든 착용하기 좋은 새로운 타임피스는 다양한 무브먼트와 기능을 아우르는 제니스의 독보적인 정밀 고진동 기술과 DEFY 컬렉션의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모든 엘 프리메로 칼리버와 마찬가지로, DEFY Skyline Tourbillon 의 무브먼트 또한 5Hz(36,000VpH)의 고진동으로 박동하며 최적의 크로노미터 성능과 충격에 대한 내성을 보장합니다.

각면을 살린 기하학적인 구조의 41mm 케이스와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블랙 세라믹 소재의 조화로운 브레이슬릿으로 완성된 DEFY Skyline Tourbillon 은 DEFY Skyline 특유의 대담하고 건축적인 디자인과 투르비옹 메커니즘의 기계적 움직임을 하나로 아우릅니다.

다이얼 하단 부분의 창을 통해서는 수많은 별자리가 흩어져 있는 은하의 핵심 부분을 연상시키는 DEFY Skyline 중심부의 운동 요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렵한 베벨을 갖춘 섬세한 미러 폴리싱 브릿지에 고정된 투르비옹 케이스는 오픈된 4 각 별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투르비옹 메커니즘을 탑재한 다른 DEFY 레퍼런스 와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라인이 돋보입니다. 투르비옹은 자체적인 축을 따라 60 초에 한 바퀴씩 끊임없이 회전합니다. 또한 케이스는 10ATM(100m) 방수 기능을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든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DEFY Skyline 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는 선레이 패턴의 메탈릭 다이얼과 별이 빛나는 하늘 패턴 인그레이빙은 고진동 투르비옹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DEFY Skyline Tourbillon 에 맞춘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스틸 버전에서는 블루 컬러로, 세라믹 버전에서는 블랙 컬러로 등장하는 4 각 별 인그레이빙 모자이크는 6 시 방향의 투르비옹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이얼 바깥쪽 주변을 향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냅니다. 다이얼과 대조미를 선사하는 야광 애플리케이션 마커 및 핸즈와 더불어 블루 다이얼에는 로듐 도금 인덱스, 블랙 다이얼에는 로즈 골드 도금 인덱스가 장착됩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를 구동하는 새로운 엘 프리메로 3630 오토매틱 고진동 매뉴팩처 칼리버는 6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브릿지의 꼬뜨 드 제네브 스트라이프는 마치 투르비옹에서 뿜어나온 듯한 선레이 패턴으로 배열되어 투르비옹에서부터 다이얼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장식을 연상시킵니다. 별 모양의 오픈 로터를 통해 모던한 무브먼트 구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DEFY Skyline 모델과 동일하게 DEFY Skyline Tourbillon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이 함께 제공되며, 별도의 도구 없이 케이스백의 간편한 스트랩 교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폴딩 클라스프를 갖춘 블루 또는 블랙 컬러의 추가 러버 스트랩으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은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와 제니스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레퍼런스: 03.9300.3630/51.1001

핵심 사항: 오토매틱 고진동 튜르비옹. 튜르비옹에서 시작되는 다이얼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 패턴.

스크류-인 크라운.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30 오토매틱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 튜르비옹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1분에 1회 회전하는 6시 방향의 캐리지.

56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튜르비옹 케이스.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로터

가격: 55,0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ATM

케이스: 41mm

다이얼: 블루 톤 선레이 패턴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폴딩 클래스프. 두 번째 스트랩 포함: 블루 러버와 폴딩 클래스프.



DEFY SKYLINE TOURBILLON CERAMIC

레퍼런스: 49.9300.3630/21.1001

핵심 사항: 오토매틱 고진동 튜르비옹. 튜르비옹에서 시작되는 다이얼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 패턴.

스크류-인 크라운.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30 오토매틱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 튜르비옹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1분에 1회 회전하는 6시 방향의 캐리지.

56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튜르비옹 케이스.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로터

가격: 65,000 스위스 프랑

소재: 블랙 세라믹

방수: 10ATM

케이스: 41mm

다이얼: 블랙 톤 선레이 패턴

아워 마커: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과 폴딩 클래스프. 두 번째 스트랩 포함: 블랙 러버와 스틸 블랙 PVD 폴딩 클래스프.

